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 회의…유지관리 성과 공유

이운안 기자 | 승인 2026.11.25 15:34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방안 심도 토의
노후 시설 보수 및 용수공급 실적 공유하며 사업 추진 점검
기후변화 대응 위해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와 협력체계 강화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 회의…유지관리 성과 공유.(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11월 24일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사운영대의원 회의』를 열고 유지관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추진한 노후 시설물의 보수 현황과 용수공급을 위한 준설 실적, 강수량이 부족해 가동한 양수장 실적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농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공사 운영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는 지역 대표 농업인인 대의원들의 건의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027년 신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과 유지관리예산 추가 확보에 힘을 쏟아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신혜 연천포천가평지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 수확량 감소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모두 힘을 합쳐 가뭄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운안 기자 hy8269631@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